

발행처/(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미래관 807호 교육연구소

E-mail/ ier@kangwon.ac.kr 발행인/박주병 주간/김은영 부주간/박찬수

Vol. 11

2021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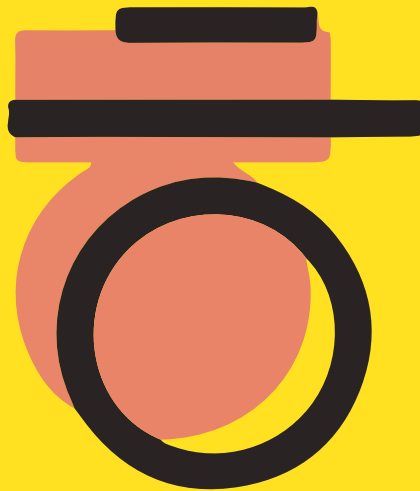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지역&교육협력

SINCE 20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특집]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기반 교육 협력



<http://keri.kangwon.ac.kr/>



# Contents



## 교수논단

지역활성화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시설의 지역자산화 방안  
/ 이재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특별기고

생각보다 높지 않은 학교 담장: 학교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문화예술과의 연계  
/ 이상결(영월초등학교 교사)



## 재학생 기고

학교 문화예술과 지역사회연계 모색  
/ 박찬수(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박사과정)



## 대학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 부산대학교



##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

교육의 예술적 측면(I):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정신의 자유  
/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What a Wonderful World* 세계의 교육이야기

[프랑스]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노력: '문화패스'와 '룸니'  
/ 김지원(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교수)



## 세계 대학의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육학과/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전국의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박유미(인제 하늘내린두레학교 대표) / 박미경(도담도담마을학교 교사)  
/ 이가영(인제교육지원청 장학사)



## 교육연구소 행사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 참여 / 지역교육협력학과 종강총회



## 교육연구소 알림

<신간소개> 과학교사의 성장과 수업 개선을 위한 셀프스터디:이론과 실천  
2022 Teach for Gangwon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모집 중



# 지역활성화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시설의 지역자산화 방안\*

이재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 도시재생이 현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매년 100개가 넘게 지정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카페부터 커뮤니티센터에 이르기까지 목적과 규모가 다양한 공공시설이 만들어졌다.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자리잡은 공공시설물은 지역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주변 지역의 지가와 임대료 상승을 동반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였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을 근거로 실시된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경험이 부족하여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이후 시설물의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 주체의 범위와 역할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에 고려되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역관리(Area Management)와 공공시설의 지역자산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1. 지역자산과 지역자산화의 의미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서 지역자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자산은 해외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Local Asset, Regional Asset, Community Asset, Community Wealth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자산을 지역공동체(Community)가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Asset)으로 정의한다. 지역자산은 구조와 형태 측면에서 다양하게 규정된다(박인권, 2012).

구조적 관점에서 지역자산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지역자산이 부동산, 역사적 장소 등 경제적 가치를 갖고, 지역사회가 필요하거나 공동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 자산도 포함한다. 형태적 측면에서는 유형과 무형 자산의 개념을 포함한다. 유형 자산은 장소를 포함한 자연 자산, 공간과 시설을 포함한 구조 자산으로 구분한다. 무형 자산은 역사와 관광을 포함한 문화 자산, 공동체와 사람을 포함한 사회 자산과 일자리와 소득을 포함한 경제 자산으로 구분된다. 경제 자산은 건물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민 소득 및 일자리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 자산은 공동체 활성화, 환경개선과 복지 등 무형 자산을 주로 포함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임상연 외, 2016).

\*이 글은 다음의 논문을 간략히 정리한 것임.

한승욱·이재수, 2021,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지역자산화 방안: 부산광역시 사례, 주택도시연구, 11(1), 81-100.

## 2. 공공시설의 지역자산화 단계와 방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역량 강화에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부작용이 있는 지역은 공공부문이 핵심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최명식 외, 2018). 공공부문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의 소유권만 확보하는 방식은 아래 <그림 1>의 공공자산화 영역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인 지역가치와 지역역량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공공자산화를 넘어 지역자산화가 필요하다. 지역자산화는 <그림 2>와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화되어야 한다. 강화된 지역역량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그 중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산화를 통한 지역가치 상승 전략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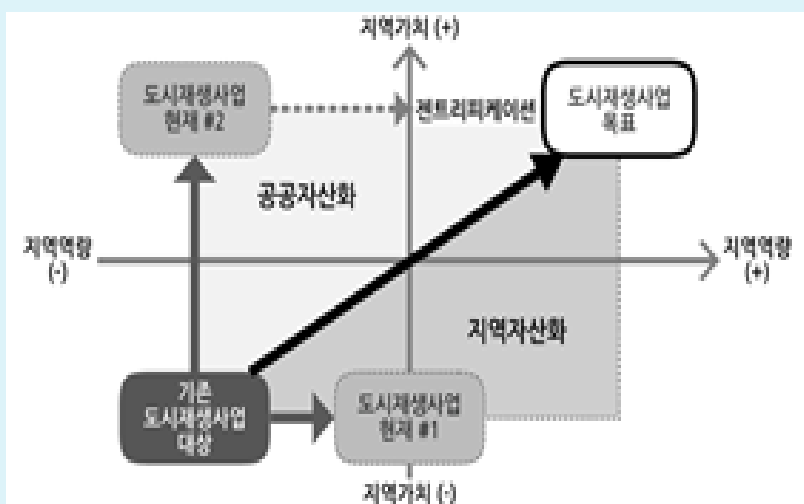


그림 1 공공자산화와 지역자산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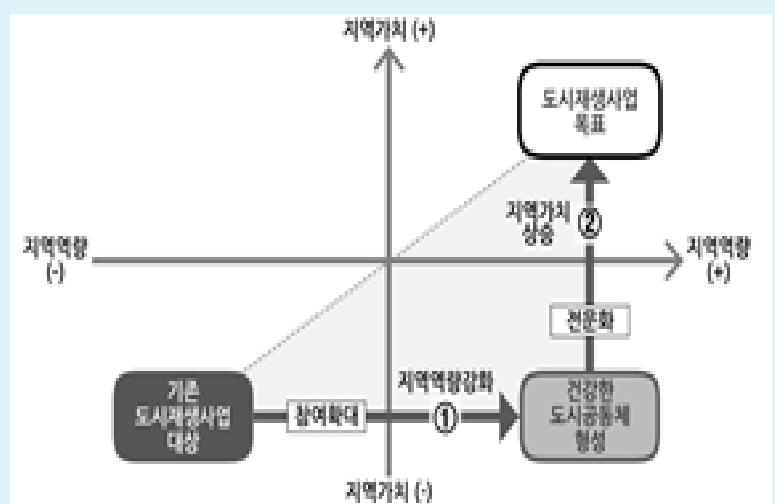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자산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고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조직의 유무와 역량이 중요하다. 거제도 장승포에서 ‘다양섬 프로젝트’라는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주)공유를위한창조의 사례는 지역자산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공유를위한창조는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부산에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거점시설 중 하나인 ‘이바구캠프’를 운영·관리하였다. 최근까지 지역공동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조직 역량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역자산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농협, 신용보증기금이 협약을 체결하여 농협이 신용보증기금에 37.5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375억 원을 한도로 지역자산화 사업주체에게 최대 1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이 사업의 목표는 지방의 삶에 로망을 가진 사람, 삶의 전환을 원하는 청년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로컬라이프 팩토리’를 컨셉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방문자 유입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사업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지역자산화 대상 공간의 예비 건물주 및 예비 공간운영자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부동산의 소유 및 운영 관계를 기획하고, 이 관계자들이 모두 기획, 설계, 시공, 운영단계를 공유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는 비가시적 지역자산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 사례는 공공지원형 지역자산화 과정에서 공동체 주도형 지역자산화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자산의 지역자산화가 필요하다. 모든 공공자산을 지역자산으로 만들 수 없고 모두 지역자산화의 효과를 제공할 수는 없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의 물리적 실태, 공간적 현황과 운영·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이 자료는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간 수요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 제3섹터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예비 운영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자산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섹터나 공동체가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이후 공공지원형 자산화의 단계로 이행한다.

지역자산화 지원조직은 설립 초기부터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지역자산공사 형태가 되면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자산 활용이 경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자산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자원 및 인적자원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업의 참여가 자유로운 지역자산화 지원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인권.(2012),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4), pp.1~25.
- 임상연 · 박세훈 · 정우성 · 임지영 · 이민정 · 이윤주(2016),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방안”. 국토정책 Brief, 556. 안양: 국토연구원.
- 최명식 · 김승종 · 송하승 · 김수진 · 홍사흠 · 전은호 · 박윤미 · 오근상(2018),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자산관리조직 도입 방안 연구: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 학교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연계 |

# 생각보다 높지 않은 학교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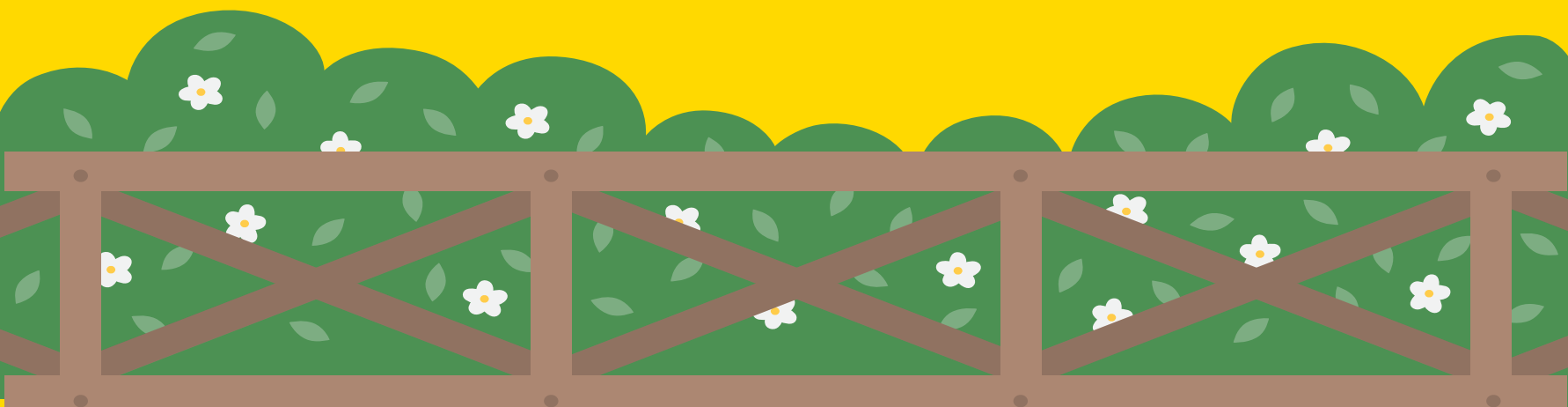
이상걸(영월초등학교 교사)

6년 전, 전교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영월의 연하분교로 발령이 났다.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작은 학교라서 그 활동에 비해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역주민들이 모여 마당놀이 ‘능말도깨비놀이’를 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무작정 문화재단을 찾아가서 그 팀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발표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당놀이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나 빼고 다른 분들은 이미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였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마당놀이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일반인이 지역 예술가들 사이로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재능과 상관없이 예술가들은 그런 나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학교 선생님이 지역의 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온 것 자체가 너무 반가웠다고 하셨다.

연상분교, 연하분교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능말도깨비놀이’를 두 분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녹여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천연염색 작가님, 국악 강사님, 공연 배우, 박물관 관장님, 예술원장님 등 다양한 직군의 지역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어른들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셨다. 그리고 더 필요한 활동이 있으면 지인을 소개해주시기까지 했다. 그 덕분에 아이들과 1년 동안 마당놀이를 준비해서 공연으로 올릴 수 있었다.

영월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분교에서 했던 활동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규모가 큰 학교에 와서도 분교에서 생겼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영월군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그림책 연구회 ‘그림책 읽는 영월선생님’은 나의 또 다른 지원군이다. 영월에서 먼저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은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어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혼자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



교사연구회가 든든한 기반이었다면 영월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합회는 선생님과 지역민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주었다. 교사 연구회는 이미 조직되어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지역민은 그림책 활동에 관심이 많아도 접할 수 없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그림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그 결과 교사 7명, 지역민 17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연합회에서는 예산, 공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교사와 지역민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책 토대가 없어서 꿈을 이룰 수 없었던 많은 육아맘, 직장맘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부듯했다.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그림책 출판 작업을 돕고 있다. 작년부터 문화도시추진센터의 분과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을 맺게 되었는데, 출판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셨다는 센터장님은 아이들의 그림책 작업을 손수 챙기시며 몇 시간씩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다. 그림책 제작은 물론 작가와의 만남까지 지원해주셨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교사인 나에게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활동가로 세워주고 싶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외에도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 수련관 등 학교 밖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렇게 만남이 잦아지다보니 자연스레 식사도 함께하는 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럴 때마다 들은 말이 학교의 담장이 너무 높다라는 말이었다. 학교의 담장이 높다고? 지역의 담장이 높다고 생각했던 내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다. 지역 분들은 여러 가지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학교로 들어오지만, 선생님들은 지역으로 나갈 어떤 계기나 동기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분이나 장소를 먼저 찾아 나서다보면 어느덧 마을교육활동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특별한 교사여서가 아니라 지역으로 나오려는 교사가 있다면 먼저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줄 분들이 분명 근처에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낯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물론 자기 노력과 시간도 더 할애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와 지역의 담을 넘으려면 나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서로 담을 넘으려는 여러 시도가 필요하다. 때론 담을 넘지 못할 때도 있고, 담을 넘었어도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담을 넘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서로 넘고 넘다가 담이 닳아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주민들도 모두 교육이란 이름으로 하나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순 없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날이 속히 되길 꿈꿔 본다.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사회연계 모색

박찬수(지역교육협력학과 박사과정)

## 1. 학교 문화예술교육 전개

학교 예술교육이 본격적인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예술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의 음악, 미술, 체육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 외 예술 분야 교육은 정규 교과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간간히 이뤄졌다. 간혹 특정 예술분야에 역량이 있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통 예술을 전승하기 위해서 학교와 연계하여 예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sup>1)</sup> 지역의 축제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 지역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와 접목하여 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 예술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는 2006년부터 시작한 ‘방과후 학교’정책이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한 방과후 학교는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정규 교과 이후에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이 학생에게 예술 수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 중심의 예술 교육의 다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정규 교과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며, 농어촌이나 벽지 학교 학생에게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예술교육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통과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법·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고, 예술 분야별로 예술가들이 초·중·고등학교 방문해 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큰 환영을 받았으며 학교 예술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사업은 국악으로부터 시작하여 2019년도를 기준으로 8개(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 디자인, 사진, 공예) 영역으로 세분화 되었다. 수업은 정규 교과(음악, 미술, 창의적체험활동) 수업과 동아리 형태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음악 교과와 접목 할 수 있는 국악을 선호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 국악교육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인과 학교 예술교육을 접목한 지역연계 예술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2008년에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교과(군)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하여 동아리 활동 확대를 예술교육이 가능해졌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보다 넓은 문화 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연계 예술교육은 지역 행사 및 축제에의 참가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피드백이나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세계, 삶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방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sup>2)</sup>

1) 농악과 판소리 등 지역의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 지역에서 학교를 지정해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2) 교육부(2019).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 2. 지역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예술 향유와 함께 창의성, 인성, 관계, 문화다양성 역량을 함양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학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교육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학교 예술교육은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예술교육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교재, 기자재 등 예술교육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연계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4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인적자원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술을 강사 자원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둘째는 예술콘텐츠 자원으로 지역 예술 소재나 지역특성을 활용해 학교 예술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지도교사의 역량에 의해 개설 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지도교사가 학교를 떠날 경우 지속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지역과 연계해 지역 특성화를 한다면 지도교사가 교체되더라도 해당 예술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다. 셋째는 발표(공연, 전시) 기회 제공이다. 발표는 예술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강력한 동기유발과 성취감 그리고 교육적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지역연계를 통해 다양한 발표 기회를 확보 할 수 있으며 발표를 통해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재정자원이다. 학교 예술교육의 재정자원은 대부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 학교 예술교육 사업이 종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학교 예술교육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예술교육과 지역의 연계는 지역의 입장에서 도 이익이 된다. 우선 예술가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 방과후 학교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수요자를 중심으로 안정된 수업을 얻을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시작한 ‘예술 강사 파견 사업’은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감수성과 인성·창의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였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3)</sup> 결과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안정된 수입원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예술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sup>4)</sup> 그리고 지역의 전통예술을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전승시킬 수 있으며, 지역 고유 예술 콘텐츠를 지속시키고 전승시킬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축제(예술제)에 학교 예술교육과 연계한다면 공연의 다양성을 확보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축제에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관심을 받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예술교육의 지역연계는 학교와 지역 한쪽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 학교와 지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3)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초기에는 학교 예술교육을 일자리 정책과 연관키는 것에 대해 일자리 수 늘리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지역 예술가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다.

4)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정제되면서 이에 대한 예술 강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술 강사들은 예술 교육 시수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축소되고 있으며, 시간당 강사비가 2006년에 4만원이 책정되어 2019년에는 43,000원으로 소폭 인상이 되었다. 예술 강사들 사이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표 1 지역연계 예술교육 자원

자원의 유형	내용
강사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술영역을 교수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예술가</li> <li>• 전문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며, 교사에게 전문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예술전문가</li> </ul>
예술콘텐츠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예술교육 소재 및 관련자료(정선 아리랑, 영원 능말도깨비 등)</li> <li>• 예술교육 경험 및 노하우, 교육방법론, 지역 특성 및 수요 등</li> </ul>
발표(공연, 전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공연장, 전시 공간, 지역 축제 무대 등)</li> <li>•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지역 예술제, 지역축제 등)</li> </ul>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교육에 필요한 재정</li> <li>• 예술제 참가비 및 상금</li> </ul>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사회연계는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양질의 교육으로 학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지역 예술가를 전문 강사를 수급하면서 연극교육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며, 예술가의 작품은 학생의 예술교육에 연계할 수 있다. 예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았다. 학생 스스로가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 연극교육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가령 지역의 예술을 활용해 작품을 구성하고 지역의 교육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면 지역사회의 지지 및 예산에도 확보가 용이하다. 학교 예술교육이 강조 될수록 지역자원과 지역콘텐츠는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 대학기반 문화예술 평생교육프로그램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산대의 경우 지역적 특색을 살려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성인 교육'을 위한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자원의 유형	내용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대학 재학생들의 재능을 활용한 목요아트스페셜 개최 - 3개학과(음악·한국음악·무용학과) 재학생들의 찾아가는 예술 공연 개최</li> <li>지역청년·원로 작가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전시회 개최 - 지역 내 신생 청년작가와 원로작가들이 참여, 교내 문화예술 전공학생들과 함께하는 기획전시회 개최(2회)</li> <li>지역사회 연계 아트센트 주관의 전시 교류회 개최 - 부·울·경 동남권 연합교류 교수전 개최(미술학과/조형학과/디자인학과 참여) - 부·울·경 동남권학생 교류전 개최(미술학과/조형학과/디자인학과 참여) - 부산대-부산교대 미술 교류전 개최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li> <li>대학박물관 개방을 통한 역사·문화 특별전시회 개최 - (특별기획전1)'조개와 사람의 시간, 패총에 묻다' 주제의 기획전 개최 - (특별기획전2)'어머님을 그리며'를 주제로 한 김동수박사의 기증유물특별전 개최</li> </ul>
시민참여형 지역 영화산업 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영화단체 연계 영화산업 전문가 초청특강 개최 - 지역민/재학생 대상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주제의 초청특강 운영 - 특강 영상물 및 인터뷰집 제작·배포</li> <li>BIFF 출판물 공동 발간 및 공식리셉션 공동 주최</li> </ul>
책읽는 대학 프로젝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관 기반의 자기주도적 독서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민/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람책 독서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사람책)를 만나 인생의 경험·철학을 나누어 지혜를 찾는 프로그램(8팀 선발) - (독후감 공모전) 선정도서 독후감 공모·평가를 통해 우수 독후감 선정</li> </ul>



## 시민평생교육 지원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자체 연계 치유인문학 강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우수 인적자원을 활용한 치유인문학 강좌 운영(금정구청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별 지역민 50명 대상 10개 주제 강의</li> </ul> </li> </ul>
부산대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대와 함께하는 '시민인문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금정구청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정BOOK PARK(작은도서관) 활용, 상·하반기 3~4기 운영</li> <li>- (3기) 4차산업혁명 주제, (4기) 지역학 기반 인문강좌 기획·추진</li> </ul> </li> <li>부산대와 함께하는 '인문학이 있는 저녁' 프로그램 운영(해운대구청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대구 상업시설 개방·활용, 야간 대중강연 개설·운영</li> </ul> </li> <li>시민참여 지역 북페스티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 강좌와 연계, 책을 통한 시민 소통·공감의 문화행사 개최</li> <li>- 무대 토크콘서트 및 주제별 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 전통문화행사 체험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자체 연계 치유인문학 강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명절·세시풍속과 국가기념일을 반영한 체험형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농업인의 날 전통 파우치 만들기 체험 및 민속놀이 한마당</li> <li>- (1월) 새해(설날) 맞이 전통행사 체험 기획·운영</li> </ul> </li> </ul>
지역대학과 함께 하는 효원성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대학 연계 전통성년제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성년제 절차에 따른 성년제의 현대적 재연출 (지역대학생 및 지역민 대상)</li> <li>- 지역 중·고등학교 전통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li> </ul> </li> </ul>

## 발달장애성인교육을 위한 비학위과정

세부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을 위한 「PNU 꿈나래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중심 발달장애인을 위한 2년제 비학위과정 「PNU 꿈나래대학」 운영(2020학년도 총 12명 대상 학기수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자격: 예술적 재능이 있고 그룹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만 18세~28세)</li> <li>- 교육과정: 공통 교육 + 선택 교육 + 통합예술심리치료로 구성 (공통교육과정)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 중심의 교육 운영 (문화예술창작활동) 발달장애인의 예술재능 강점을 고려한 특화 교육 제공 (통합예술심리치료) 발달장애인의 자신감, 감정·의사표현 증진 등 심리적 지원</li> <li>- 학기 이수 후 예술재능 발달장애인 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li> <li>- 발달장애인의 입학 시기, 장애정도, 문화예술적 경험·능력에 따라 분반 시행</li> <li>-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적응능력 배양에 따른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개별 능력에 적합한 교육 접근 시행</li> <li>- 매학기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각 강좌별 수행도·성취도 평가 실시</li> </ul> </li> </ul>

# 교육의 예술적 측면(I):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정신의 자유

박주병 (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칸트가 <판단력비판>에서 다루는 주제는, 흔히들 미학이라고 번역하는 ‘에스테틱’(aesthetic)이다. 에스테틱이 요즘은 상업적 용어로 쓰여서 미용이나 화장술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감수성, 감각작용(sensation)에 가깝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to kalon’은 에로스(열정적인 사랑)를 쏟을 만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에스테틱(미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바움가르텐의 저작도 “Meditation Philosophicae de Nonnullis ad Poema Pertinentibus”(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기 때문에, 에스테틱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포함해서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마음의 능력인 감각, 감수성 등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Immanuel Kant: 1724-1804]



[Critique of Judgment(1790)]

칸트는 사실 학문을 다룬 <순수이성비판>과 도덕을 다룬 <실천이성비판>, 이 두 권으로 자신의 철학체계 전체를 완성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말년에 제3비판서인 <판단력비판>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통해서 감성의 능력과 판단력을 다루면서 자신의 철학체계를 완성한다. 그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이 3비판서를 가리켜 '자연과 자유의 종합', 또는 '자연에서 자유로의 이행'이라고 불렀다. 필자가 보기에 칸트는 자유의 단서, 마음이 가진 능동성의 단서를 감각세계의 아름다움에서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실천이성비판>에서 한 것처럼, 도덕적 행위는 자유의 직접적인 증표이다(증표여야 한다). “최고선과 자유 같은 개념들은, 실천적 근거 위에서 그리고 실천적 사용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나 인간존중과 같이 도덕을 성립시키는 개념이 그저 허상일뿐이라면(객관적 실재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어떤 도덕적 판단도, 그 판단에 입각한 도덕적 선택과 행위도 허구이고 기만일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자기가 뭔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감지하는 것은 꼭 도덕만이 아니다. 도덕적인 것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예쁜 것, 예쁜 짓’을 목격한다. 해지는 저녁노을, 아침에 듣게 된 청아한 새소리, 낙엽태울 때 나는 냄새, 통통한 볼살을 가진 아기가 열심히 먹고 있는 것, 등등... 또는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들 중에서 뭔가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일깨우는 것들이 있다. 처연하게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은하계조차 깨알처럼 위치하는 천체의 사진, 하늘을 두조각 낼 듯 내려치는 천둥소리 등등. 이런 것들의 가치는, 대상들을 연구해서 그 안의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것이다.

앞선 비판서에서 칸트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즉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상상력에 의해서 직관에 주어진 덩어리를 종합하고, 이것을 오성이 제시하는 개념에 일치시켜야만 한다(p.173, 58문단)고 말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는, 가령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의 그림이나, 또는 콩깍지가 낀 연인들처럼, 상상력이 직관에 주어진 덩어리를 종합하더라도 그것을 규정할 개념이 없다. 그것은 개념의 사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칸트는 아름다움의 이러한 속성을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표현한다. 미라는 것은, 개별적 대상에만 적용되는 단칭판단(singular judgement)이고(§ 9)이지만(전칭판단이라면 모든 장미꽃은 다 아름다워야 하지만, 단칭판단이기 때문에 이 장미꽃이 예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어떤 보편적인 규칙을 대표하는 사례인 것처럼, 예시적 필연성(§ 19), 범례적 타당성(§ 25)을 가진 것으로서 간주한다. 이렇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서 개념이 적용되지 않지만, 마치 그것을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에도(주관적 보편성, § 8; 또는 개념들의 매개에 의존하지 않는 쾌감에만 관련되어 있는 보편적 목소리, § 9), 마치 눈 앞의 물체를 감각할 때 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오성 사이의 미결정, 불특정의 조화(§ 35)를 느끼게 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나와 말이 통할 것 같은 지적 존재)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하려 한다. 물론 뜻대로 잘 되지는 않는다. 전달가능성은 이해한 것에는 보장되지만, 앞에서 말한 저녁노을, 거대한 폭포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너 아까 그거 봤지?’ ‘어땠어?’ ‘정말 멋있지 않니?’... 이것뿐이다. 상대방이, ‘아니 못 봤는데?’라거나 ‘그게 뭐 어때서?’라는 반응이 나오면 재빨리 화제를 딴 데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아름다움의 사례들, 칸트가 말하는, 취미판단과 숭고판단, 목적론적 판단의 사례들은, 개념을 통한 전달가능성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는 주관적 요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칸트의 포인트는, 비록 주관적 요청이기는 해도, 아름다움의 감수성이 그저 한 순간 내 마음에만 머물다가는 일회적 체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무늬로 남을 가능성이다. 우리 문화 안에는 객관적 이해를 통해서 축적된 학문도 있지만, 아름다움의 관조와 표현도 있고, 송고의 경험에 대한 전승도 있으며, 심지어 학문의 과정 가운데 매순간 매달리는 우주의 단일성이라는 신비\*도 있다. 이런 문화의 요소들은 인간의 마음이 단일하기 때문에 대상에 투영한 단일성들이다.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상에 투영한 자유들이다. 아름다운 것들은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자연이라는 기술자가 나에게 만들어준 선물인 셈이고, 송고한 것들은, 내가 감각세계에 머물지 않는 정신적 존재라는 점을 일깨우는 계시인 셈이고, 이 거대한 자연은, 계속적인 탐구가 의미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보내준 해독표가 있는 암호들인 셈이다. 만약 이런 주관적 요청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데쳐먹을 궁리밖에 하지 못할 것이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다음 더 건실하게 살겠다는 희망을 품지 못할 것이고, 자연을 이해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을 성장시킬 수 없을 것이다.

\* 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환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낸 인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한 것이 이 과목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 구절은 어느 대학의 교양강좌가 내건 강의목표이다. 이 과목의 이름은?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이다(<https://itunes.apple.com/kr/course/hyeondae-mullihaggwa-ingan/id605195523?l=en>). 물리학 강의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송고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물며 다른 과목이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영화 「쇼생크탈출」에서 앤디는, 독방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이중창 ‘저녁바람이 부드럽게’를, 교도소 방송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준다. 노래가 끝날 무렵 흑인 죄수 레드와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어진다.

“

나는 지금도 그때 두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노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비천한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고 먼 곳으로부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우리가 갇혀 있는 삭막한 새장의 담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d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ay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in Shawshank felt free.)

”



칸트가 제3비판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영화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듯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마음에 꽃혔을 때의 체험을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영위하는 삶에 들어있는, 아름다움과 생기는, 그저 얻어걸려 스쳐가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 우리 영혼이 딱딱한 질료의 세계에 현시한 무늬들이다. 무늬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거죽의 표현에 각인되고 채색된 장식이다. 예술의 상상, 학문의 추상, 철학의 논리도 결국 그렇게 현실에 새겨놓은 장식들일지 모른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식이라는 이유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단서와 계기들이다. 미에 대한 관조, 생에 대한 의지, 완성을 향한 갈망....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 다음 호에서 교사-학생의 관계에서 "예시적 필연성, 범례적 타당성"을 찾아보겠습니다.



CLICK

YouTube 영화 쇼생크탈출 중 피가로의 결혼, 편지의 2중창



[쇼생크탈출(1994)]  
The Shawshank Redemption, 1994

참고문헌

Kant, I.(1790). Kritik der Urteilstkraft. 백종현 역(2009). 판단력 비판. 아카넷.  
King, S.(1982). Rita Hayworth and Shawshank Redemption.



##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노력: ‘문화패스’와 ‘룸니’

김지원(강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교수)

○ 프랑스 문화부 장관 프랑크 리에스테르는 재임기간 주요공약으로 2022년까지 3세~18세 사이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단계별로 실행 중에 있음

### ■ 문화 패스(Pass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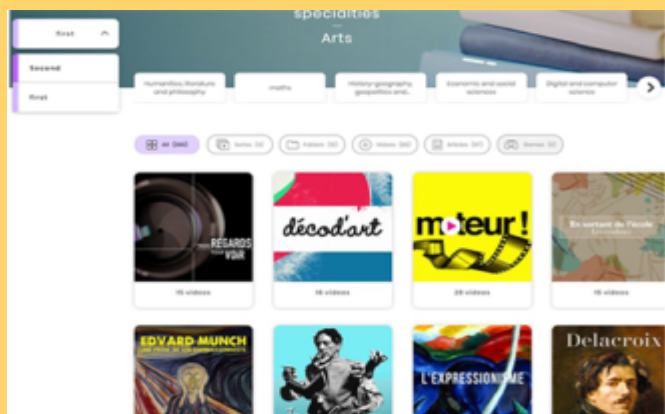
-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500유로(한화 약 66만 4천원)의 바우처 제공 프로그램. 2019년에 시범실시 후 점진적으로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웹사이트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제공



[문화패스 웹사이트]

### ■ 룸니(LUMNI)

- 온라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18세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 프랑스 교육부와 문화부가 주관하고 프랑스 공영방송(프랑스 텔레비지옹, 아르떼, 프랑스 미디어 몽드, 라디오 프랑스, TV5 몽드) 및 국립시청각연구소(INA)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교육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



[룸니 웹사이트]



[2019. 11. 스랑크 리에스테르 장관

룸니 웹사이트 런칭 발표 현장]

※사진출처: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 룸니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시기별, 학년별 교과 과정과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학년에 따라 음악, 조형예술, 영화, 시민교육, 미디어교육, 역사 및 지리학, 언어학습, 다문화교육 주제별로도 분류가 되어 있어 사용자가 자료를 찾기에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 제공 콘텐츠는 대기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에는 게임형식의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 각 연령대에 맞춘 흥미유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프랑크 리에스테르 장관이 “문화해방, 다양성, 혁신의 요구에 모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접근성 및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질의 자료로 제작되어 있음



관련사이트



<https://pass.culture.fr/>

<https://www.lumni.fr/>



#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육학과/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세계 각국의 대학들은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 개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지역&교육협력」에서는 2021년 12월호부터 매회 해외 대학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1876년 사업가인 존스 홉킨스가 존스 홉킨스 병원과 함께 설립하였다. 대학이 위치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가 저소득층이 많고 가장 위험한 우범지역의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대학의 탄생 자체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공헌자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대학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미국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최초의 NGO인 '자선 단체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가 설치된 곳으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한 대학 가운데 하나이다.<sup>1</sup>

“존스 홉킨스 대학은 2021년 12월 현재 24,000명의 전일제 및 시간제 학생이, 9개의 단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볼티모어에 4개 캠퍼스는 있는데, 그외에도 워싱턴 D.C.,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도 1개씩, 그리고 중국과 이탈리아에도 캠퍼스가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서비스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하나의 표준형 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학교수, 교직원,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장·단기 자원봉사자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 지역사회 교육 분야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는 음악교육, 직업교육, 대학입학 준비교육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볼티모어 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 음악교육기관인 피바디재단(Peabody Institute)에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메릴랜드 주 및 인근 주에 소재하는 5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교육 분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범대학은 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평가, 교사훈련 심화과정, 학교 조직 및 교육개혁 등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일선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약대는 지역사회 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건 관련 직업교육과 대학입학 준비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개발한 대학-지역사회 교육 협력 프로그램인 "Success for All"은 지역사회 초등학교의 제반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었다. 현재는 SFA재단(Success for All Foundation)을 통해서 중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문해 수준과 일반교육을 증거기반 학교개선전략(evidence-based school improvement strategy)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는 영국에도 재단이 설립되어 지역사회 초등학교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지역사회 보건문제 해결 프로그램

볼티모어 저소득층의 심각한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 주위 동부 볼티모어 지역은 저소득층 분포 지역으로 미국에서 마약, 에이즈, 폭력, 암, 보건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저소득층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매우 낮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은 지역사회 보건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근린지구의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소규모 로컬 클리닉을 설립하여 보건증진 계몽활동과 함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가구 방문 프로그램과 로컬 클리닉 설립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대학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대학병원 밖에서의 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Johns Hopkins Monument  
Johns Hopkins University, Baltimore, Maryland,  
USA. Sculpted by Hans Schuler, 1935



##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Live Near Your Work(LNYW)’프로그램

LNYW 프로그램은 볼티모어시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역사회 재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들이 대학 캠퍼스 주변 볼티모어 근린지구의 주택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볼티모어 지역사회의 재건을 유도하고 있다.<sup>2</sup> 이는 볼티모어 지역사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 주택소유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홉킨스 재단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메릴랜드 주에서 고용자 주변 지역사회 거주율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낳았다.

### ■ 거주지역에 따른 대학의 보조금 지원

- 센트럴 볼티모어, 이스트 볼티모어와 이거파크(Eager Park) : \$14,500
- Remington (HCPI), Better Waverly : \$7,500 (병원직원 \$2,500)
- 그 외 지원 가능 지역 : \$2,500

### ■ 대학과 볼티모어시 간의 실 지원금액

Grant	Gross Grant Amount From Hopkins	Net Grant Amount	Add City's Portion	Total "Cash-to-Close" Amount
\$5,000	\$2,500	\$1,535	\$2,500	\$4,035
\$10,000 (JHU only)	\$7,500 (JHU only)	\$4,605 (JHU only)	\$2,500	\$7,105 (JHU only)
\$17,000	\$14,500	\$8,903	\$2,500	\$11,403

Net grant amounts may vary based on individualized tax calculations.

자료 : <https://hr.jhu.edu/benefits-worklife/live-near-your-work/boundaries-and-grant-amounts-2/>

- 1 이 글은 “류연택·정희선(2007).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개발: 미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94-96”을 토대로 하되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 2 존스 홉킨스 대학뿐만 아니라 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UMB) 역시 LNYW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학 직원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혜택으로, 필요한 주택 구입을 포함하여 주택 계약금 및 부동산 매매 수수료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대학별로 지원 상한액은 상이하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우 \$17,000을(<https://hr.jhu.edu/benefits-worklife/live-near-your-work/>), 메릴랜드대학교의 경우 \$16,000을(<https://www.umb.edu/live-near-your-work/>)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볼티모어 시 직장 근처에서 생활하기 프로그램에서 최대 \$2,500의 상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대

# 전국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01

**박유미**

하늘내린두레학교  
대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02

**박미경**

도담도담마을학교  
교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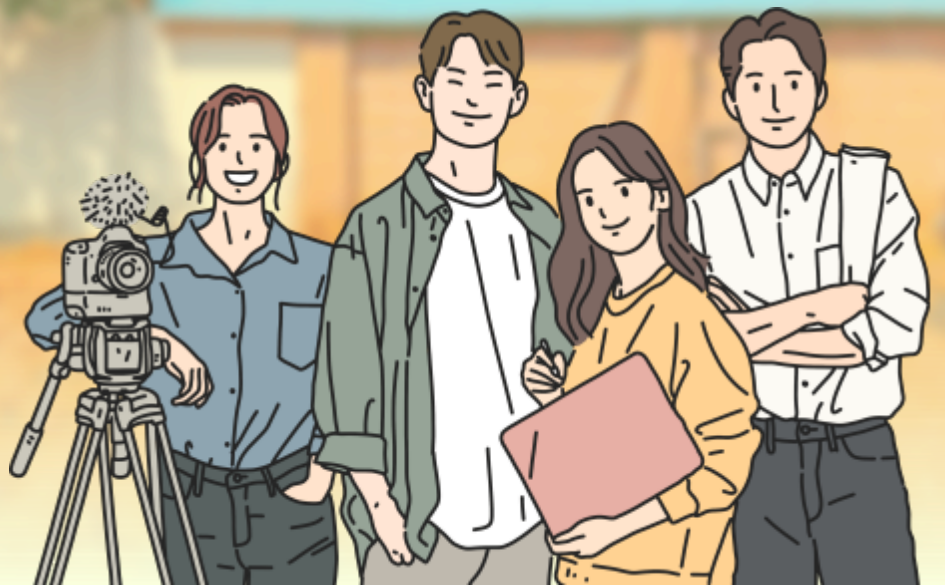


03

**이가영**

인제교육지원청  
장학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 참여

**일시** 2021.12. 8.(수) 13:00~17:00

**장소**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 YouTube 생중계 **LIVE**

**주제** 위기에서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대전환

**연사** 신철균(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  
**위기에서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대전환**

중심심포지엄의 지역성과 국가 미래교육비전 김 전 경 (한국교육과정研究院)	OECD 교육내용반 2030과 학생주도성 (Student Agency) 신철균 (OECD 교육국장)	어느 작은학교에서 발견한 학생주도성 (Student Agency)의 힘 신 철 균 (강원대학교 교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 황 원 기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관)
--	---	--	---

**주최·주관**  
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연구소

**후원**  
대한민국 교육위원회  
KNU 강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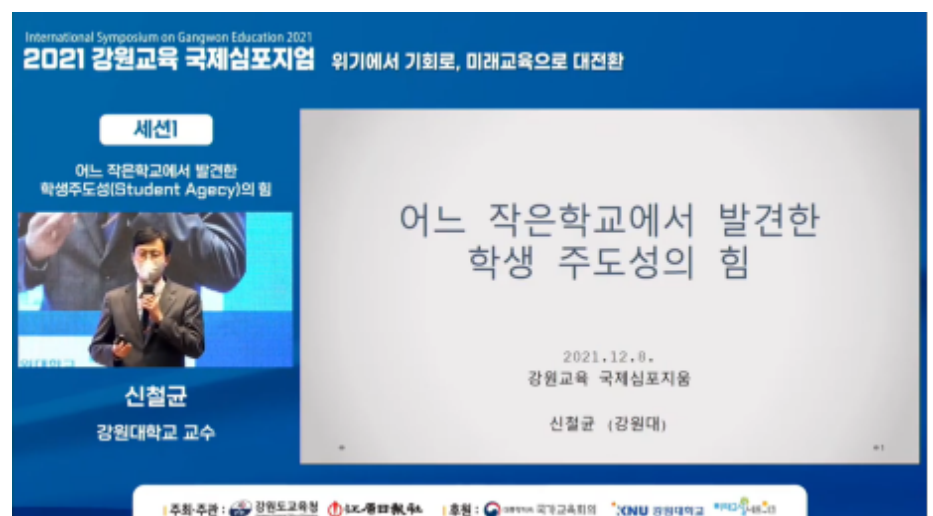
**2021. 12. 8.(수)**  
13:00 ~ 17:00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 강의실 111호

**참석대상**  
강원도만(교육청,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학부모)

**참석 신청 QR코드**

**온라인 실시간 중계** | YouTube 생중계 |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Gangwon Education 2021  
**2021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엄** 위기에서 기회로, 미래교육으로 대전환

**세션1**  
어느 작은학교에서 발견한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의 힘

**어느 작은학교에서 발견한  
학생 주도성의 힘**

2021. 12. 8.  
강원교육 국제심포지움  
신철균 (강원대)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수

**주최·주관** : 강원도교육청 | **공동주최** : 강원교육연구소 | **후원** : 대한민국 교육위원회, KNU 강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 2021학년도 지역교육협력학과 종강종회

**일시** 2021. 12. 8.(수) 17:00~18:00

**장소** 강원대학교 교육4호관 203호

**내용** 2021학년도 지역교육협력학과 운영 보고 및 간담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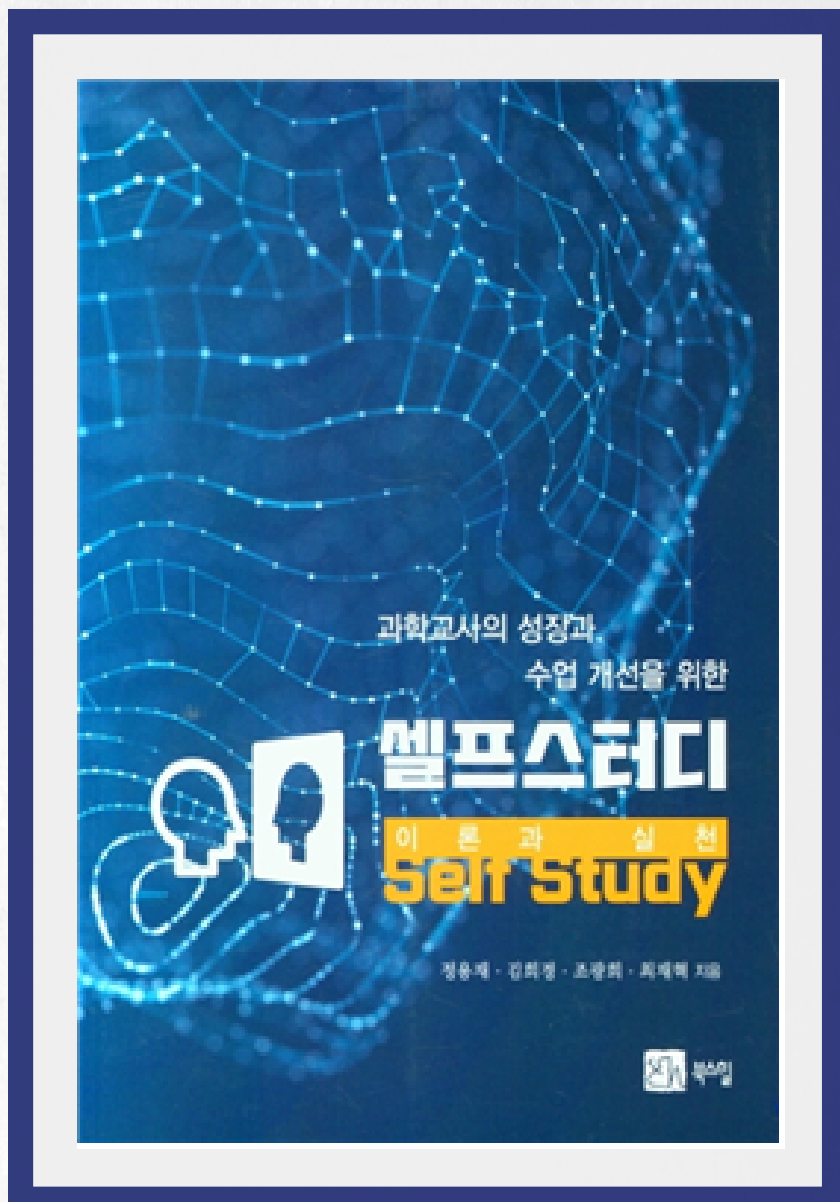
<신간소개>

# 과학교사의 성장과 수업 개선을 위한 셀프스터디: 이론과 실천

김희경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Everyone thinks of  
changing the world,  
but no one thinks of  
changing himself. ”

- Leo Tolstoy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연구자이자, 고등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많은 교수들이 각기 자신의 전공 분야 전문성에 대해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교수가 되고, 임용 후에도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연구에 끊임없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이에 반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은 임용과정에서도 엄밀한 필터링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교수가 된 후에도 준비 과정이나 연수 과정 없이 바로 강의실에 들어서서 외로운 고군분투를 하게 된다. 결국 대학의 강의실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모두 시행착오를 통한 교수학습 과정의 실험실이 되는 셈이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교육자로서의 고민과 성찰이 어떻게 '셀프스터디'라는 연구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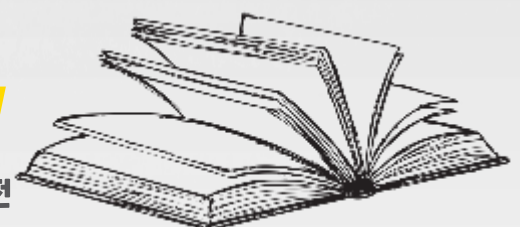
저자와 3인의 공동저자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대학 교원이 되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행히도 일부는 현장교사 경력도 있었고, 교과교육 전공자로서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좋은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은 막막했고, 이 고민을 공유할 곳은 찾기 어려웠다. 교수학습 관련 특강과 세미나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수업의 본성이 가진 역동성과 맥락성 때문에 다른 이의 좋은 사례가 나의 수업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일회성의 특강과 단기간의 세미나로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매 학기 강의를 할 때마다 고민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저자가 연구년 중 새로 접한 '셀프스터디'라는 새로운 접근법은 교육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들을 뭉치게 하였고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공동연구를 지속하게 하였다.

셀프스터디는 일반화된 교육이론이나 처방을 수업에 적용하는 연구가 아니다. 수업을 하는 이와 연구자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셀프스터디는 타자를 대상을 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자기 자신의 수업 실천과 개선에 대해 연구한다(Hamilton & Pinnegar, 1998). 즉, 수업과 관련하여 자기 스스로의 고민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비판적 성찰 등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실천에 대한 천착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며, 연구의 결과로 교육자로서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교육적 실천의 개선을 추구하는 연구이다(Loughran, 2007; 이혁규 등, 2012; 조광희 등, 2016). 다만, 제목이 주는 오해로 혼자 하는 연구로 잘못 이해될 수 있으나 셀프스터디에선 비판적 동료들을 강조한다. 셀프스터디는 '비판적 동료'라는 요소를 둬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혼잣말이 되지 않도록 돕는다. '비판적 동료'는 자료에 대한 비판적이고 협업적인 성찰, 분석을 통하여 대안적 설명과 다양한 관점에 대해 고려하고, 협동적 탐구를 수행한다.

이 책은 저자들이 수업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셀프스터디'를 과학교육에서 접목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살려, 비슷한 고민을 가진 교수나 현장교사들이 우리처럼 희망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술되었다. 다만, 아직 설익은 저자들의 연구가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에 걱정이 앞섰지만,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기로 하였다. 이 책을 계기로 수업에 대한 고민과 개선을 향한 노력을 같이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논의의 싹인 셀프스터디 모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Self-Study

과학교사의 성장과 수업 개선을 위한 셀프스터디: 이론과 실천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향상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강원도 내 현장  
교사와 사범대 학생  
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사범대생의 원격  
교육 전문성 강화

방학기간  
주기적  
학습지도로  
학업 태도 개선

강원대학교 사범대  
학생에게 지역사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이해 및  
국립대 공공성 확보

# 2022 Teach for Gangwon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하는  
강원도 중학생 기초학력 든든 프로그램”



## 지도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총 6개 과목**



## 참여대상

기초학력 증진, 학업의욕  
고취, 학습태도의 형성 등이  
필요한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 선발)



## 멘토링 내용과 방법

교과목별 신청 상황에 따라  
멘토와 멘티 1:1 또는 1:3 수준  
**소수 정예 맞춤형 원격지도**

(1인 최대 2과목 선택)



## 참여 특전

교과에 대한 지도는  
**“전액 무료”**로 진행

운영기간: 2022년 1월 3일(월) ~ 2월 6일(일) 주 3회×5주 (총 30시간)

## 신청 방법

담당교사가 신청서를 교육연구소로 공문 제출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학교의 소재지, 학교별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선정함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ZOOM)**

\* 코로나19나 강원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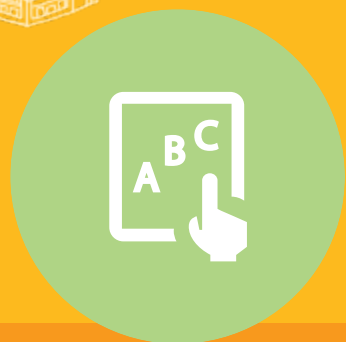
문의처: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033-250-7256)



2022

# Teach for Gangwon(II)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하는  
강원도 방송통신중고 **어르신 학생**의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 지도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총 6개 과목**



## 참여대상

기초학력 증진, 학업의욕  
고취, 학습태도의 형성 등이  
필요한 **강원도 지역의 학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 선발)



## 멘토링 내용과 방법

교과목별 멘토와 멘티 1:1  
**맞춤형 학습 지도**  
(1인 최대 2과목 선택 가능)



## 참여 특전

교과에 대한 지도는  
**“전액 무료”**로 진행  
**“웹캠과 헤드셋”** 제공

2차 겨울 방학 : 2022년 1월~2월 주 1회×5주 (1회당 2시간)

## 신청 방법

- 학교별로 학생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별도 양식 (향후 신청기간 및 양식은 공문으로 송부)으로 담당교사가 신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학교별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선정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ZOOM)